



김명렬

蘭

“優雅하면서도 素朴한 東洋의 멋”

庶民들과는 距離가 먼 貴하고 값비싼 화초로만 알려졌던 “꽃 中의 貴族” “살아 있는 寶石” 蘭이 觀賞植物로 점점 大衆化되가고 있다. 優雅한 氣品과 清雅한 香氣를 지닌 蘭은 예부터 士大夫와 墨客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도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사랑을 쏟고 싶어하는 귀한 식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키우기가 까다롭고 그 값이 비싸다는 先入感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으나 요즘들어 蘭의 여러가지 特性들이 밝혀지고 번식법이 개발됨에 따라

손쉬운 재배요령이 개발되어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삭막한 都會地生活에서 풀한포기의 生命도 尊重할 줄 아는 지극히 소박한 마음으로 蘭을 가까이 해보자. 온家族이 蘭으로서 和睦하게 趣味와 情緒를 기르다 보면 蘭 栽培의 즐거움도 배가될 것으로 믿는다.

蘭은 금방 자라지도 금방 죽지도 안는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고 추하지 않고 고고하게 죽어간다고 한다.

蘭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기르며 인간완성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 蘭의 特徵

蘭은 草本食物이지만 잎이 지지 않는 多年生 植物로서 다른 植物에 비해 가장 兪達한 植物이라고 할 수 있다.

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바위나 나무에 뿌리를 박고 寄生하는 寄生蘭과 一般植物과 같이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서 사는 自生蘭으로 区分된다. 寄生蘭은 風蘭種類이며, 春蘭, 寒蘭등이 自生蘭에 屬한다.

어떤 蘭이든간에 그 환경에 適應하게 되어 있지만 뿌리는 다른 植物에 비해 매우 독특하게 되어 있다. 우선 다른 點이 뿌리가 굵다. 불뽕정도로 굵은 것도 있고 이 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植物의 크기에 比해서 매우 굵고 연하게 되어 있으며, 그 껍질을 벗겨보면 속에 철사같은 것이 있고 그 주위를 스폰지 같은 것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털어 뿌리라고 한다.

스폰지같은 것은 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 뿌리를 보호하는 구실도 한다. 蘭을 오래도록 물을 안준다던가 뽑아서 몇일을 두어도 말라죽지 않는것은 이 스폰지 같은것이 水分을 저장해서 오래동안 마르지 않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風蘭도 공기중에 露出된 상태에서 오랜가뭄을 克服하면서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다. 내부의 철사 같은 것이 진짜 뿌리이고 스폰지 같은것은 물을 저장하는 「탱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大葉風蘭이나 카틀레야 같이 잎이 두꺼운 난들도 이 큐피클층이 水分이 증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長期間 乾燥한 狀態에서도 充分히 견딜 수 있는 것이다.

● 蘭의 成長條件

蘭의 成長條件을 쉽게 알아보자면 全羅道나 慶尙道の 南海岸一帶에서 自生하는 春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大部分 우리나라 山에는 소나무가 많은데 이 소나무 아래에서 春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여름에는 周圍에 雜草가 무성하여 自然히 햇빛을 가리고, 위에는 큰 나무잎들이 울창하여 강한 햇빛이 닿지 않게 되어있으며 항상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예부터 蘭은 通風이 잘 되어야 한다는 말을 實感하게 한다.

落葉진 가을부터는 약한 햇빛을 직접 받게 되는 環境에서 자라고 있음을 본다.

自生하는 春蘭을 헤쳐보면 뿌리가 흙속에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넓게 뻗어 있는데 落葉이 떨어져서 썩은 腐葉土와 흙層의 中間에서 자라고 있음을 보게된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며, 腐葉層이라 뿌리에 恒常 空氣流通이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이나 봄, 즉 잠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太陽光線을 가릴 때 까지는 直射光線을 充分히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自然環境에 비추어 본다면 ① 뿌리는 물빠짐이 좋아야 하고, ② 햇빛은 겨울에서 이듬해 雜草가 우거질 때까지는 直射光線을 쪼이는 것이 좋고, ③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遮斷되는 서늘한 곳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環境을 그대로 家庭에



이것이 1億원짜리 蘭(黑珍珠) 日本寒蘭에 속한다.

일본에 5~6분, 대만에 2~3분, 한국에는 하나뿐이다. 촉당 3,500만원으로 3족이니 1億원을 呼價한다. 군방원 주인 畢重華氏 소장.

다 옮겨 놓을 수만 있다면 蘭키우는 데는 안정마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風蘭의 경우는 어떤가?

風蘭은 南部地方의 섬이나, 바닷가 근처의 바위나 나무에 寄生하여 자라는데 바닷가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바닷바람은 습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風蘭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①自然溫渡가 높은 곳에서 자라고, ②겨울에는 밤낮의 氣溫差가 심하지 않은 따뜻한 곳에서 자란다.

每日 일기예보를 들을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부내륙지방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지만 남부 도서지방이나 서해안은 겨울에도 온도의 差異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것이다. 그러니까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30℃以上 올라가는 더운 곳에서는 항상 시원하게 해 주라는것은 蘭이 자라는 環境이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自生하는 것임을 알고 自然環境에 가깝게 관리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